



2015 북엑스포아메리카 성료 인협, 한국인쇄문화관서 수출 지원·세계인쇄회의 개최 홍보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조정석)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의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린 2015 뉴욕국제도서전(2015 BEA)에 한국인쇄문화관을 설치하고 인쇄물 수출 지원 및 2016년 세계인쇄회의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2015 뉴욕국제도서전(2015 BEA)이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동안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렸다. 뉴욕국제도서전은 북미 최대의 출판관련전시회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이집트,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80여개국에서 2042명의 VIP가 참석했다. 또한 출판전문가 1만832명, 관련산업 종사자 2만895명, 저자와 팬들의 만남인 BookCon 1만8천명 등 총 6만여 명의 출판전문가 및 관계자가 방문했다.

올해 주빈국은 중국으로, 1800여㎡ 규모의 전시장에 총 1만여종의 도서를 전시했다. 또한 130여개의 특별행사를 비롯해 봉황출판미디어공사(Phoenix Publishing and Media Company, 凤凰出版传媒公司), 중국출판그룹(China Publishing Group, 中国出版集团) 등 150여 개의 출판그룹이 참여했다.

한편 2016년 북엑스포아메리카는 2016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시카고 McCORMICK PLACE에서 열리며, 주빈국은 폴란드다.

다양한 컨퍼런스·작가 사인회 인기

북엑스포아메리카에서는 세계 출판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전자출판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IDPF Digital Book Conference는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자출판 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 정보, 사업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BEA Bloggers Conference, uPublishU at BEA Conference, IDPF Digital Book & MIP, Audio Publishers Association Conference (APAC)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독자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600명 이상이 참가해 사인회를 여는 Authors & Autographing 등이 큰 관심을 모았다.



1. 한국인쇄관에 직접 참가한 금강인쇄(주), 동아출판(주), ㈜아시아프린팅, 청아문화사 2. 2015북엑스포아메리카 주빈국인 중국 부스
3. 베스트셀러 작가 600명 이상이 참가해 사인회를 연 Authors & Autographing 4-5. 전시회 기간 동안 다양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6. 2015북엑스포아메리카 전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자출판관 운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와이팩토리·스마트한·보아조아·퍼블스튜디오·아이포트폴리오·북잼 등 6개 출판사와 함께 전자출판관을 운영했다. 전시기간 중 총 180여 건의 상담 및 계약 협의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 진흥원에서 참가를 지원하는 5회의 해외 도서전에 모두 참가하는 ‘스마트한’은 미국 출판사들과 개별적으로 미팅을 가지며 아동용 콘텐츠 개발 서비스를 소개했다. 멀티미디어형 애플리케이션의 가상현실 미술기법 솔루션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주목을 받았다.

인협, 한국인쇄문화관 설치해 직지 홍보 및 수출지원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조정석)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36㎡ 규모로 ‘Printing Korea’라는 이름의 한국인쇄문화관을 설치하고 직지심체요절 금속활판(복제) 등을 전시함으로써 한국 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특히 한국인쇄

문화관 부스가 유명작가의 사인회장 앞에 위치해 모든 방문객이 한국인쇄문화이라는 것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부스에서는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와 현황, 주요 수출업체의 명단이 포함된 영문 홍보물 등을 배포했으며, 한국 인쇄문화 홍보용 영문 리플릿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문화를 홍보하고, 인쇄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국내 인쇄사가 현재 및 잠재 구매자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쇄물 수출 증대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6 세계인쇄회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도서전에 참가했던 인쇄물 수출담당자들은 “미국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쇄물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게다가 유럽을 비롯한 해외 출판 및 인쇄시장의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출판계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할 수 있어 우리 회사의 수출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4개사 직접 참가해 240만 달러치 수출 상담

한국인쇄문화관은 금강인쇄(주), 동아출판, 아시아프린팅(주), 청아문화사 등 4개사가 직접 참가해 조성됐다. Printing Korea의 타이틀로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로 구성된 한국인쇄관은 각 참가사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 자유로운 상담을 보장했으며 우수 인쇄물 및 위탁 전시 업체 브로슈어 전시 및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미국, 캐나다, 영국, 멕시코 등의 출판관계자와 130여 건, 24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금강인쇄(주)



금강인쇄(주)(대표이사 송창국)는 정기간행물, 아동도서, 캘린더 등을 비롯한 상업인쇄물 전문 업체다. 설립 이후

고객 무한 감동 서비스와 최첨단 인쇄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CIP3, 무알콜 인쇄, 습수정화살균 시스템 등을 갖추고 친환경 인쇄를 추구한다. 2013년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 상담트레이닝으로 참가한 후 꾸준히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으로 인쇄물을 수출하고 있는 중견인쇄사다. 전시 기간 동안 40개 업체와 5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동아출판(주)



동아출판(주)(대표이사 이재석)는 월간지, 단행본, 전집, 참고서, 사전, 교과서, 라벨 등 다양한 인쇄물을 최상의 품질로

공급하고 있다. OHSAS/KOSHA 18001 인증, G7 마스터(윤전, 매엽 공정) 인증, Soy seal mark 사용 인증, ISO 14001 인증, FSC CoC 인증 등을 획득한 바 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며,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이탈리아 등으로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매년 해외 주요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 홍보 및 신규고객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30개 업체와 8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아시아프린팅(주)



아시아프린팅(주)(대표이사 이국홍)는 어떤 분야의 인쇄물이라도 고품질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 인쇄사다. 품질관리를 위해 전 직원들은 인쇄물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생산 과정을 감독해 인쇄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수출제품은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잡지, 캘린더, 엽서 & 메모 카드, 쇼핑백, 패키지 등이다. 매년 뉴욕도서전, 동경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해외 주요 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자사 홍보 및 신규고객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35개 업체와 6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청아문화사



청아문화사(대표 김남수)는 고급 컬러인쇄를 비롯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전, 성경 등의 박엽지 인쇄기술을 주도

하고 있는 30년 노하우의 중견 인쇄사다. 1985년 설립, 최고의 인쇄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연구에 지속투자하고 있다. ISO 9001 인증 획득으로 인쇄품질과 서비스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엽지 인쇄에서 가장 어려운 온습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25개 업체와 5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

